

가정통신 2020

제5호 자/녀/사/랑/하/기

이상한 버릇? 틱? 바로 알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



"우리 아이가 자꾸 눈을 꾹박거리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안과에서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언젠가부터 '음음' 하고 소리도 내는데,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이번 호에서는

- 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버릇과**
- ② **초등학교 입학 무렵** 흔히 시작하는 **틱에 대해** 알아보고
- ③ **부모님의 도움과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아이에게 버릇이 있어요.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머리카락 뽑기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머리카락 뽑기,
다리 떨기 등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습관이 되면 오래 지속하기도 합니다.

1 우리 아이에게 버릇이 있어요.

부모님이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



버릇을 하는 자녀를 보았을 때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어 **당장 그 행동이 멈추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버릇을 단번에 해결하기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전학, 중요한 시험 직전 등)나 조절할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이 있어서는 아닌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를 돕거나(손톱 깎기,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하나로 묶어주기) **대체행동**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칭찬하며 **꾸준히 격려해주세요.**

Q 어떤 경우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 손톱을 물어뜯기 등이 무척 심각하여 **상당한 불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머리카락을 뽑는 것으로 인해 **탈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2 이럴 때는 틱을 의심하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데, 그 모습이 상황에 맞지 않고 **짧고 빠르고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틱(Tic)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틱

- ① 눈을 깜빡거리요. 결눈질하거나 흘겨봐요
- ② 얼굴을 실룩거리거나 입을 짹짹 벌려요
- ③ 머리를 흔들거나 목을 옆으로 젖혀요
- ④ 어깨를 들쭉거리고 몸통을 앞뒤로 꿀렁거리요
- ⑤ 팔꿈치를 꺾꺾 피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움직여요

음성 틱

- ① 코를 킁킁거리요
- ② 목에서 킁킁거리며, 헛기침해요.
- ③ 돌고래 소리처럼 갑자기 높은 음의 소리를 내요
- ④ 특정 단어나 욕설을 불쑥 내뱉기도 해요

3 아이에게 생긴 틱,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알아야 할 틱의 양상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며 스스로 노력하면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아이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동안 틱 증상을 보이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몇 달 후 다시 보이거나 다른 틱 증상으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곤, 흥분, 긴장,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증상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행동

- 증상이 가볍고 아이의 생활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이 틱 증상에 대해서는 **흔내거나 지적하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으세요!

틱 증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진료가 필요합니다.

1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틱

2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음성과 운동 틱

3

틱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강박 장애, 불안증, 우울증 등을 동반할 경우

뚜렛장애 : 틱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닌,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1년 이상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

5 애들이 놀린다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해요.



1

아이에게 우울증 등의 정서 문제가 동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틱 증상으로 인해 힘든 중에도 열심히 치료를 받고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아이에게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해주세요

3

틱 증상은 아이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틱 증상에 대해 놀리지 않는 학급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5호이며,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2-6959-4542)에 문의주세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교정신건강지원센터
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